

성도의 교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고난 주간(4/14-4/19):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4.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4/16-18): 수~금 오전 6 시 (YouTube)

5. 성 금요 예배: 4 월 18 일 저녁 7 시 온라인(Youtube)으로 드립니다.

6. 부활절 예배(4/20)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7. 이사야 53 장 6 절 (2025 년 4 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 실만한 물가 교회 현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새한예수교장교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7 장(27)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8. 사순절 (5)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324 / 323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27 장 (통 361)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Luke) 6:22-23 (p. 98)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Choose suffering for the sake of the Gospel

*찬 송 Hymn

461 장 (519)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말씀 노트 ||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눅 6: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눅 9: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눅 6: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 목회와 삶 ||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설립 되었을 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눅 15:7).

하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목회자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시작하는 교회는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숫자가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스스로 가정과 교회를 모두 책임 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목회자는 목사의 이중직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이중직에 관하여 생계형 이중직과 소명형 이중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생계형 이중직이란 목회자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 이외의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고, 소명형 이중직이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는 분들의 의견은 만일 목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다면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배려 없이 시작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하여 이러한 주장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에서는 부모이며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이면서 가장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작하는 교회를 영어 표현으로 'Church planting'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필요하듯이 하나의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작은 사랑과 정성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마 16:18)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